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1/28℃ 목포 20/26℃ 여수 21/25℃

단기 4342년 (음력 9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03호 1판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영산강 준설토 처리비용 수백억

정부, 지자체에 덤터기

오염토 골재 활용 어려워 재정난 심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광주시, 나주시, 무안군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국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에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르면 4대강 하상정리 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즉, 영산강 준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인근 지자체가 골재와 비 골재 부문으로 처리, 이를 당해 공사에 투입하거나 적치장에 보관한 뒤 일반 시장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광주와 나주, 무안, 함평, 영암, 담양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준설토 처리 협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준설토 적치장 건설 및 처리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광주·전남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준설토 적치장 건설 및 처리 비용으로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방비로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비해 2~3배의 준설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주시는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무안, 함평, 담양, 영암군도 수십억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준설토 처리에서 생기는 모래 등 골재를 공사현장이나 시장에 판매한다면 재정 부담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준설토에서 발생한 골재를 모두 판매하려면 적어도 3~5년 이상의 적치기간이 필요한데다 영산강 준설토의 오염도가 심각, 골재나 성토재로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해소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와 영산호 퇴적물오염도를 비교할 경우 납 오염도는 전국 평균 5.1mg/kg인데 비해 영산강 퇴적토는 29.9mg/kg로 오염 정도가 6배에 육박했다.

구리 오염도는 17.0mg/kg로 전국 평균 3.8mg/kg에 비해 5배, 니켈 오염도는 19.9mg/kg로 전국 평균 11.1mg/kg에 비해 1.8배나 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쌓인 영산강의 퇴적 준설토를 골재와 비 골재로 분류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며 지역 시장을 고려할 때 골재 수요 전망이 밝지 않다"며 "특히, 오염물질인 퇴적 오니토의 처리 문제도 상당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전거 면허시험' 녹색성장의 견인차인 '자전거 바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광주시 남구 효덕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시 남구가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기 위해 마련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인많은 전남, 암 발생 최고

10만명당 344명…울산의 2배

전남지역 암 발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암검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제시' 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 4천926만8천928명(2007년 기준) 중 암환자는 46만4천857명(2006년 기준)이었다. 또 한 해에 11만5천691명이 발생, 인구 10만명 당 새로 발생하는 암 환자수(조발생률)는 241.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경우 한해에 7천151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 조발생률이 34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320.8명), 충남(305.2명), 전북(300.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조발생률이 17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기(200.0명), 인천(202.1명), 대전(207.5명) 등이 뒤따랐다. 광주의 조발생률은 208.5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으며 서울도 222.4명으로 비교적 낮았다. 전남의 조발생률이 울산의 2배나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심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암의 조발생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울산은 65세 인구비율이 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조발생률이 높은 지역인 경북(15.3%), 충남(15.1%), 전북(15.1%)의 65세 인구비율도 높은 편이었으며 경기(7.7%), 인천(7.5%), 대전(7.4%), 광주(7.6%), 서울(7.7%) 등의 65세 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암 예방가능성에 대한 인지 및 실천을 조사한 결과, 15.7%가 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34%만이 암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10월 국가단위 암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제정하여 공표한 '국민 암예방 수칙'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가지 암예방 수칙 중 안전한 성생활, 규칙적인 운동, B형 간염예방접종, 조기검진 등의 실천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인권조례' 전국 첫 제정

시의회 행자위 통과…27일 본회의 의결 거쳐 시행

광주가 세계적 인권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광주시 인권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이명자 의원(민주·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시의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차별없는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 교육 및 인권 증진 시책 펴야 할 책무를 띠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인권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책과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의회, 시민사회·인권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 인권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5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교육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은 인권 존중과 민주·평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시는 투자 심사 및 예산 편성, 주요계획 수립 때 인권 증진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병만 장관 "향후 모든 수능성적 분석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수능시험 점수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성적을 여러 형태로 분석해 공개해서 학부모까지 전부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이나 개별 학교는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해 (최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학교명이 그대로 서열화돼 알려지는 역기능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수능성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에게 분석을 의뢰, 연내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12일 올해 수능시험이 치러지면 곧장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학교의 설립·운영 형태나 지역 및 평준화 여부, 재정자립도, 성별, 재수 여부,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며, 우수 학교 사례도 발굴해 다른 학교에 전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자칼앤하이드 · 09년10월 24일~25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김장훈·싸이 완타치 · 09년12월 26일 · 광주월드컵경기장